

국내 기업의 PL대응 실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이 아직은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조업·유통업·무역업체 등 전국 303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기업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향후 PL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계획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물책임법의 인지정도에 관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6.8%,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38%로 전체의 94.7%가 약간이라도 PL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들어본 적없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5.3%에 불과했다.

향후 PL 관련 소송에 대해 응답업체의 90.3%가 다소(62.2%) 또는 크게 증가(28.1%)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별 변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9.4%에 불과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대응 계획으로 향후 추이를 관망한다는 응답이 59%,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30.3%, 또한 별다른 계획 없다는 기업이 10.7%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관해서는 PL제도 시행과 관계가 없거나 PL소송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소송사례가 많지 않아 PL제도 시행이 자사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자사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52.7%로 절반 이상(56.7%)의 기업이 자사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3.3%나 되어 PL법 시행과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도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대응방안으로 PL보험 가입(47.5%), 신속한 고객 Claim 대응(36.8%), PL 관련 문서관리(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PL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L보험 가입율은 19%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가입 사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33%), 타업체 가입 여부 관망(26.1%), 곧 가입 예정(17.5%)으로 나타났다.

PL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방안으로 세제지원(28.4%), PL상담실 설치(25.6%), 컨설팅지원(24.4%), 금융지원(17.6%),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지원(14.9%)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는 컨설팅(41.7%), PL상담실(36.1%) 등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지원(29.6%), PL상담실 설치(24.1%), 금융지원(19%)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www.kplc.or.kr)

표1.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조사항목	구분	전체 (%)	지역		기업규모		업종		수출	
			서울	지방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	비제조	있음	없음
자사에 미치는 영향	심각한 영향	4.0	3.9	4.3	10.8	3.0	3.9	4.7	3.8	4.4
	다소 영향	52.7	44.4	71.0	62.2	51.3	56.4	30.2	51.4	55.6
	별 영향없음	43.3	51.7	24.7	27.0	45.6	39.7	65.1	44.8	40.0
향후수송 증가예상	크게 증가	28.1	30.1	23.7	29.7	27.9	27.0	34.9	28.1	28.1
	다소 증가	62.2	58.7	69.9	56.8	63.0	62.9	58.1	61.0	65.2
	별변화없음	9.4	10.7	6.5	10.8	9.2	9.8	7.0	10.5	6.7
	줄어들 것임	0.3	0.5	0.0	2.7	0.0	0.4	0.0	0.5	0.0
표2. 제조물 책임 대응방안 앞으로 미칠 영향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61.3	63.2	57.0	59.5	61.5	62.4	54.5	65.1	52.2
	제조원가 부담	9.3	10.5	6.5	8.1	9.4	8.5	13.6	8.0	12.2
	신제품 개발 지연	25.8	23.4	31.2	21.6	26.4	26.7	20.5	25.5	26.7
	신제품 개발 지연	4.0	3.8	4.3	8.1	3.4	4.3	2.3	2.8	6.7
	인력자원의 낭비	2.3	1.9	3.2	2.7	2.3	2.3	2.3	2.4	2.2
	기업 이미지 실추	9.6	9.1	10.8	13.5	9.1	10.1	6.8	8.0	13.3
	기타	3.3	3.8	2.2	0.0	3.8	3.5	2.3	3.3	3.3

조사항목	구분	전체 (%)	지역		기업규모		업종		수출	
			서울	지방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	비제조	있음	없음
대응계획	적극적 대응	30.3	30.4	30.1	56.8	26.6	32.3	18.6	31.4	27.8
	향후추이를 관망	59.0	55.1	67.7	40.5	61.6	60.3	52.1	58.6	60.0
	별다른 계획없음	10.7	14.5	2.2	2.7	11.8	7.4	30.2	10.0	12.2
대응방안	H 관련 문서관리	29.3	26.5	35.2	60.0	24.9	31.1	16.7	34.4	17.6
	면책계약을 통한 H 위험전가	5.0	5.3	3.3	0.0	5.7	5.3	2.8	6.2	2.4
	H 준비금 적립	1.4	1.1	2.2	0.0	1.6	1.6	0.0	1.0	2.4
	H 보험가입	47.5	49.7	42.9	54.3	46.5	49.2	36.1	48.2	45.9
	신속한 고객 claim 대응	36.8	34.9	40.7	28.6	38.0	36.1	41.7	32.3	47.1
	기타	5.7	6.9	3.3	2.9	6.1	4.1	16.7	5.6	5.9
보험 가입여부	가입	19.0	19.7	17.6	43.2	15.5	20.7	9.3	19.8	17.2
	미가입	81.0	80.3	82.4	56.8	84.5	79.3	90.7	80.2	82.8
보험 미가입사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36.0	39.6	29.2	18.8	37.4	32.0	55.6	38.6	31.0
	자금부족	5.2	2.9	9.7	0.0	5.6	6.3	0.0	5.7	4.2
	타업체의 가입여부 관망	26.1	23.0	31.9	25.0	26.2	28.6	13.9	25.7	26.8
	보험외에 다른 대책을 갖고있음	4.7	5.8	2.8	12.5	4.1	5.1	2.8	4.3	5.6
	곧 가입 예정	17.5	17.3	18.1	18.8	17.4	18.3	13.9	15.7	21.1
기타	10.4	11.5	8.3	25.0	9.2	9.7	13.9	10.0	11.3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세제지원	28.4	30.5	23.9	19.4	29.6	28.4	28.2	28.4	28.2
	금융지원	17.6	14.1	25.0	8.3	19.0	17.2	20.5	17.6	17.6
	컨설팅 지원	26.0	24.4	29.3	41.7	23.7	26.0	25.6	23.5	31.8
	H 상담실 설치	25.6	25.4	26.1	36.1	24.1	26.0	23.1	27.0	22.4
	생산관리시스템 지원	14.9	15.7	13.0	8.3	15.8	14.8	15.4	15.2	14.1
기타	3.9	5.1	1.1	8.3	3.2	4.4	0.0	3.4	4.7	